

■ 2025년 소설가의 방 입주작가(상반기) 심의 총평

- 사업명 : 2025년 소설가의 방 입주작가(상반기)
- 심의일시 : 2024.12.4.(수), 14:13~15:02
- 심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구효서, 문태준, 송수연, 심진경

서울 프린스 호텔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하는 '소설가의 방' 사업이 벌써 10년째다. 흔히 소설가의 방은 외부와 단절된, 고립되고 고독한 장소일 것이라 생각한다. '어서 고독해지고 싶다고, 숨어 있기 좋은 방에서 나만의 세계를 짓고 싶다고' 그런 생각으로 '자기만의 방'으로 달려갈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소설가는 저잣거리에서 떠도는 갑남을녀의 이야기들을 채집하고 이 세상의 숨겨진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럴 때 소설가의 방은 상상의 동선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먼 곳이 되기도, 소곤거리는 대화와 걸쭉한 욕설이 부딪히는 대도시의 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명동 변화가에 마련된 서울 프린스 호텔 내 '소설가의 방'이야말로 이렇듯 가장 내밀하면서도 개방적이고, 가장 고요하면서도 떠들썩한, 소설가들에게 맞춤형 거처라고 할 수 있다.

16명의 작가가 지원한 이번 공모에서도 심의위원들은 그동안의 심사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심의기준과 심의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 작품집 발간을 앞둔 신진 소설가들의 안정적인 집필 활동을 후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앞으로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서와 발간 계획, 첨부 작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심의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작가들이 입주기간 동안 얼마만큼 작품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런 이유로 신진작가로서 지금까지 이뤄온 문학적 성과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첨부된 작품도 꼼꼼히 독해하면서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지원모집공고에 명시한 대로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자에게는 가산점을 주었다.

작가들이 신중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채워서 제출한 지원서를 보면서 '소설가의 방'에 대한 작가들의 기대와 염원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했다. 지원한 작가들 모두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가 돌아가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러나 아무 대가도 없이 작가들이 머물 공간을 내어준 서울 프린스 호텔의 그 마음은 지원자 모두에게 가 닿았을 것으로 본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심사위원 일동